

보도시점 2025. 3. 20.(목) 15:00
(2025. 3. 21.(금) 조간)

배포 2025. 3. 20.(목) 09:00

과기정통부, 소상공인 디지털 민생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현장 간담회 개최

- 유상임 장관, 온라인 거래터(플랫폼) 기업의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지원 현장인 부산 반송큰시장 방문
- 온라인 거래터(플랫폼)-소상공인 동반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상생협력 강화 당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3월 20일(목), 온라인 거래터(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상생협력 사례 현장인 부산 반송큰시장을 방문하여 소상공인 디지털 민생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유상임 장관 주재로 진행되었던 주요 온라인 거래터(플랫폼)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주)카카오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사례로 소개한 ‘단골 사업(프로젝트 단골)*’의 참여 현장을 찾은 것으로,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상생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지역 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디지털 교육, 온라인 통로(채널) 기반 홍보 활동을 통한 단골 고객 확대를 지원하는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먼저, 유상임 장관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이한우 반송큰시장상인회장, 강기성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박윤석 카카오 성과리더 등과 소상공인 디지털 민생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 유상임 과기정통부장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강기성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한우 반송큰시장 상인회장, 박동호 반송큰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장, 박윤석 카카오 동반성장 성과리더 등

이 자리에서 유상임 장관은 온라인 거래터(플랫폼) 기업이 소상공인을 동반 성장의 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온라인 거래터(플랫폼)가 가진 디지털 역량을 소상공인과 공유해야 온라인 거래터(플랫폼)의 상생 가치가 확산될 수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거래터(플랫폼)를 활용해 고객과 연결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온라인 거래터(플랫폼) 기업의 지속적인 상생협력 강화를 당부하였다.

이한우 반송큰시장 상인회장도 온라인 거래터(플랫폼)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전통시장의 디지털 환경 및 상인들의 디지털 활용 역량이 강화되었으며, 지속적인 참여 점포 확대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

이에,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부산시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성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로 확대 등을 위해 디지털 전환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윤석 카카오 동반성장 성과지도자(성과리더)도 올해는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고객과 소통할 수 있도록 예년과 달리 시·군·구 단위 지역에서 전통시장과 상권을 동시 지원하여 사업 성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유상임 장관은 부산광역시장, 상인회장 등과 함께 반송큰시장의 여러 점포를 방문하여, 해당 사업 참여로 소상공인들이 체감한 변화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어떤 부분인지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유상임 장관은 “온라인 거래터(플랫폼) 기업, 소상공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 서로의 강점을 살려 참신하고 다양한 협력 사례를 만들고, 플랫폼이 혁신과 공정, 상생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정부도 계속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통신정책관	책임자	팀 장	정건영 (044-202-6630)
	디지털플랫폼팀	담당자	사무관	정보람 (044-202-6635)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일을 채우는 디지털·AI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대한민국
지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지식물 자유이용허락